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22. 9. 19(월)

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최소 재정투자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·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3개 펀드 출자·조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를 동의할 의사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충청북도 펀드 출자금 지원 : 2,800백만원

○ 출자 목적

- 혁신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및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, 육성 및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
- ⇒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활성화의 기초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

○ **출연내역 : 충청북도 펀드 출자금 1식**

※ 세부내용 ①-② 출자 사업계획서 참조

○ **출자근거**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

○ **출자개요**

[SUP-유니콘육성투자조합]

- 운 용 사 : 스케일업파트너스(대표 이태규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29년(7년) ※ 투자기간 3년
- 조성규모 : 273억원 ※ 도 출자금액 : 2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)
- 투자대상 : 초기창업기업, 바이오헬스 관련기업(ICT기반 헬스케어 등) 등
- 투자조건 : 도 출자금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

[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]

- 운 용 사 :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(대표 안태성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27년(5년) ※ 투자기간 3년
- 조성규모 : 55억원 ※ 도 출자금액 : 3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)
- 투자대상 : 충청권 소재 초기창업기업,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 등
- 투자조건 : 도 출자금(3억)의 최소 6배(18억)이상 투자

[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]

- 운 용 사 : 아이스퀘어벤처스(대표 이재훈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30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110억원 ※ 도 출자금액 : 5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)
- 투자대상 : 충청권 소재 초기창업기업,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 등
- 투자조건 : 도 출자금(3억)의 최소 6배(18억)이상 투자

○ 기대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지역 창업·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5. 검토의견

□ 충청북도 펀드 출자

가. 내용검토

- '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'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¹⁾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< 출자 요청 내역 >

펀드명	운용사	모펀드 조성규모	한국모태펀드 출자액(비율)	우리도 출자요청금액
SUP-유니콘육성 투자조합	스케일업 파트너스	273억원	150억원(55%)	20억원
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	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	55억원	38.5억원(70%)	3억원
아이스퀘어 충청 엔젤 징검다리 펀드	아이스퀘어 벤처스	110억원	38.5억원(35%)	5억원

- 출자규모는 총 28억원으로 각 펀드 별로 2022~2023년 2년간 출자할 계획이며, 각 펀드별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< 출자금 내역 2 >

① SUP-유니콘육성투자조합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전체규모	2022년 출자액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273	109.2	163.8	100
LP (출자자)	한국모태펀드	150	60	90	55
	충북도	20	8	12	7
	안국약품	20	8	12	7
	비즈솔루션랩	30	12	18	11
	노란우산공제	50	20	30	19
GP (운용사)	스케일업파트너스	3	1.2	1.8	1

②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전체규모	2022년 출자액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55	33	22	100
LP (출자자)	한국모태펀드	38.5	23.1	15.4	70
	충북도	3	1.8	1.2	5.5
	청주시	3	1.8	1.2	5.5
	충북대기술지주	1	0.6	0.4	1.8
	IPS벤처스	2	1.2	0.8	3.6
	창명제어기술	1	0.6	0.4	1.8
GP (운용사)	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	6.5	3.9	2.6	11.8

③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전체규모	2022년 출자액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110	44	66	100
LP (출자자)	한국모태펀드	38.5	15.4	23.1	35
	충북도	5	2	3	4.6
	청주시	5	2	3	4.6
	에코프로	60	24	36	54.5
GP (운용사)	아이스퀘어벤처스	1.5	0.6	0.9	1.3

2) 펀드별 운용사 출자액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이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의무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- 각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사업으로, 한국모태펀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고,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'한국벤처투자(주)'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 정책 펀드임

<한국모태펀드 개요>

결성일	2005년 7월 15일
Limited Partners	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진흥공단, 문화체육관광부, 특허청, 고용노동부, 영화진흥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, 국민체육진흥공단, 교육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국토교통부
펀드규모	7조 2,775억원(2021년 12월 31일 기준)
운용기간	30년 (2005년 ~ 2035년)
주 출자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진계정, 청년계정, 혁신모험계정, 소재부품장비계정, 엔젤계정, 지방계정, 문화계정, 관광계정, 스포츠계정, 영화계정, 특허계정, 과기계정, 보건계정, 환경계정, 해양계정, 도시재생계정, 국토교통혁신계정, 교육계정
운용기관	한국벤처투자(주)
2022년도 모태펀드 운용 현황 ('22.6.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누적 출자펀드 : 1,038개, 34조 2,464억원 (외부 출자금 23조 1,272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재 운용중인 출자펀드 : 796개, 27조 8,631억원 • 2022년 상반기 모태 출자펀드 회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,650억원 회수 (회수원금 4,192억 원, 회수수익 5,458억원) ※ 투자원금 대비 2.3배의 회수 수익배수(385개 모태 출자펀드, 669개 기업)

○ 각 펀드의 내용을 보면,

- 'SUP-유니콘육성투자조합'은 운용사(스케일업파트너스(주))에서 「한국 모태펀드 출자 공모사업」을 통해 연차별 모태펀드(국비) 자금을 확보하고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2년간 20억 원을 투자하며, 총 273억원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을 주대상으로 ICT 헬스케어, 의료용 신소재, 신약개발 분야에 최소도 출자액 20억의 3배인 60억원을 충북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진행할 계획임

- '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'와 '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'는 한국모태펀드 사업 중 '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'로서 선정된 것으로 각 55억원, 110억원을 조성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며, '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'는 도 출자 금액 3억원의 6배인 18억원, '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'는 도 출자 금액 5억원의 8배인 40억원을 충북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진행할 계획임

나. 검토의견

-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이며,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지방소멸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
- 특히, 충북은 창업기업이 전국의 2.7%인 39,195개로 규모가 작고 창업기업의 생존율 또한 7년 기준 21%로 저조한 상황이며,
- 벤처투자 부분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모태펀드 역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과 창업을 위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임

-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

(단위: %)



* 총 투자기업 수 885개(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)

** 지역 구분 기준: 수도권-서울, 인천, 경기, 비수도권-(5대 광역시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 (지방) 강원, 경남, 경북, 전남, 전북, 제주, 충남, 충북, 세종

출처: 한국벤처투자

※ '21년 벤처투자액 : 수도권 81.8% (57,672억원), **비수도권 18.2%** (12,795억원)

- 지역엔젤징검다리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대상 권역별 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난 해소³⁾ 및 도내 엔젤투자⁴⁾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도권-비수도권 간의 투자불균형 해소와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'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'와 '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'를 통해 충북의 주력 업인 이차전지 등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와 반도체, ICT를 비롯한 다양한 유망기업 투자를 통해 충북의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됨
-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창업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음
- 다만, 바이오산업 특성상 제품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이 중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는 임상 진입 이전 초기단계의 자금 투자유치가 어려워 투자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
- 충북은 9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헬스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생산액 전국 2위, 수출액 전국 2위, 사업체수 전국 3위 등 각종 바이오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등 바이오 산업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
- 'SUP-유니콘육성투자조합' 출자를 통해 충북의 강점인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산업 투자 활성화로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

3) 창업 장애요인 1위 자금확보(70.9%) : 중기부 창업기업실태조사 보고서('22.2.)

4) 엔젤투자 : 초기 창업기업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원하는 펀드

- 각 펀드별 운용사를 보면, 'SUP-유니콘육성투자조합'의 '(주)스케일업파트너스'는 바이오 펀드의 특성에 맞는 바이오헬스분야 전문 벤처 투자회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, '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'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'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'의 (주)아이스퀘어벤처스는 충북지역의 대표 펀드 운용사로서 충북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또한, 공모사업자인 한국모태펀드에서 각 55%(150억원), 70%(38.5억원), 35%(38.5억원)의 금액을 출자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에서도 참여하는 만큼 펀드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펀드의 운용사는 수익성을 지향하고 충북도는 지역기업 육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추구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우려되므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
- 아울러 기존 펀드는 출자금 대비 도내기업 투자 비율이 대부분 2배 수준이 머무는데 반해 이번 출자 예정인 펀드는 지역기업 투자비율을 매우 높게 제시하고 있는데, 운용사에서 실제 투자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